

〈논 단〉

## 한국수문학회지 편집방향 및 전망

전 병 호\*

“물”이란 제목으로 제 1 호 학회지를 발간한 우리 한국수문학회지도 이제 80호를 맞고 있습니다. 1968년의 제 1 권은 1회만을 발행하였으며, 1969년과 1970년에는 각각 2회씩으로 5월과 12월에 회지명을 “물의 과학”으로 바꾸어 발행하였고, 1971년(4권)부터 1979년(12권)까지는 년 2회씩으로 6월과 12월에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제 5 권 2호(1972. 12)부터는 “한국수문학회지 <물의 과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1980년(13권)부터는 회지명을 “한국수문학회지”로 바꾸고 연간 발행횟수도 4회로 증가시켜 3월, 6월, 9월과 12월에 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번호(1994년 3월호)는 27권 1호로 통산 80호가 됩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나 회지의 발행 연륜을 보아서도 당연히 우리 한국수문학회지는 도약의 단계를 맞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실공히 물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리고 물분야 종사자들에게 충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은 물관련 종사자들이 학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양적인 증가를 위한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그 후에는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변확대를 위한 기간에도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지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학술분과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앞찬 일반기사 원고를 확보하고, 논문 수록 편수도

42편(3월호 9편, 6월호 10 편, 9월호 11편, 12월호 12편)으로 대폭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1995년부터는 회지 발행횟수를 4회에서 6회(격월간)로 증가시키기로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늦어도 1997년 부터는 학회지와 논문집을 분리하여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학회지를 통한 논문의 양적 증가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는 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론의 장을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토론의 장은 1998년경부터 실시가 가능하겠으나 실시하기 수개월 전부터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수공학분야에 몰아닥친 위기감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온실속에 안주해 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위기감은 관계, 업계, 연구소와 학계간에 일체감을 심어주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공학분야에 관련된 모든 전문인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학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일들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적인 연구에 치중하고 질적인 분야의 연구와 관리에 등한히 한 결과는 우리의 입지를 좁혀 놓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질적인 문제와 하천수질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가 수공학 분야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과 이들 분야의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 本學會 編輯委員長, 陸軍士官學校 土木工學科 教授

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교 수공학분야의 교육분석을 이번호에 수록하였으며, 앞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대하여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을 되돌아 보기 위한 “이래도 되겠습니까?”라는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2회째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이있게 알고 싶거나 소개가 필요한 관심분야에 대한 Q/A(questions and answers)코너를 5회째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별 코너의 원고는 현재 편집위원과 workshop의 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망되는 코너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수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총 118편(각각 18편, 24편, 23편, 23편, 30편)이고, 대한토목학회지 논문집에 수록된 수공학 논문은 총 75편(각각 8편, 4편, 9 편, 22편, 32편)으로 해

를 거듭하면서 논문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수공학분야의 연구가 본 궤도에 올라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수공학분야 종사자의 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전회위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수공인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그리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유분야의 확보와 발전 그리고 학회지의 앞찬 기획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참조 : 1967. 11. 20 창립총회, 1967. 12. 23 사단법인 한국수문학회 창립허가(건설부장관), 1967. 12. 30 사단법인 한국수문학회 법원에 등기(등기번호 제 141 호), 1972. 5. 27 한국수문학회로 개칭〉



〈사진〉 상류 좌안에서 본 송정 수위관측소(1992-11-5 KICT 촬영). 1917년 5월부터 관측이 개시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섬진강을 대표하는 관측소이다. 유역면적은 4255.7km<sup>2</sup>, 하폭은 약230m, 하상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다. 이 관측소에는 유량관측을 위한 cableway가 설치되어 있다. 하상이 낮아져서 관측소를 강안쪽으로 1차 연장을 하였으나 다시 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